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 차이

유장학¹, 천의영², 김해진^{1*}

¹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Difference of Cultural competence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by Cultural contact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ang Hak Yoo¹, Eui Young Cheon², Haejin Kim^{1*}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를 확인하고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S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으로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2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평균 3.49 ± 0.55 점,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평균 8.25 ± 0.10 점이었 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성적($F=7.465, p=.001$), 다문화 친구($t=-2.477, p=.016$)와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t=-3.113, p=.002$), 교외 다문화교육($t=-2.030, p=.04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 접촉 경험에 따른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 대상자와의 질적인 접촉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제어 : 다문화, 문화적 역량,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도, 간호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ltural competence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according to the cultural contact experience.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125 nursing students in S university of Gyeonggi-do.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October 1 to 31 in 2021.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of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cultural competence was 3.49 ± 0.55 points, and the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was 8.25 ± 0.10 points. The cultural compet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cademic score($F=7.465, p=.001$), multicultural friend($t=-2.477, p=.016$), foreign language communication ability($t=-3.113, p=.002$), and suburban multicultural education ($t=-2.030, p=.045$),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according to cultural contact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educational program that enhances foreign language communication and strengthens qualitative contact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subjects in order to increase the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Multicultural,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nursing competence, educational needs, nursing stud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Suwon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 Haejin Kim(kimhj@swc.ac.kr)

Received March 11,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April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0년 기준 총인구 대비 4.1%에 해당하는 214만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은 약 32만 명이었다[1]. 외국인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인 주민등록인구의 5%를 넘지 않아 아직 공식적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2], 특히 한국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외국인 혐오가 나타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으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건의료현장에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상호작용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4].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간호사는 외국인과 같이 문화적 배경에 차이가 있는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불편함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5].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은 다문화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을 저해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한다[6]. 특히, 문화는 개인의 생활양식 뿐 아니라 건강과 안녕에 대한 신념 체계, 질병에 대한 인식, 건강관리 이용행위와 태도, 간호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등에 영향을 주므로[7,8] 간호사는 다문화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신념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특성에 적절하고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9].

이에 따라 간호교육에서도 간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환경에 적합한 문화적 역량을 고려한 간호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10]. 특히 다문화 역량은 신규간호사에게 제공되는 단기간 교육을 통해 습득되어 수행으로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교육 현장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다문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적 역량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Han [11]은 여러 정의들을 비교, 요약함으로써 문화적 역량의 주요 요인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과 문화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간호과정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접촉경험이란 가족, 친구, 미디어, 해외여행 등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다문화를 가진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교류한 경험을 의미한다[12].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외국인 친구의 수, 외국인과의 만남 빈도나 외국인과의 만남 기간에 따라 또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정도, 해외여행 경험의 유무 등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한 경험이 많을수록 높고,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며 문화간호역량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13]. 지금의 대학생들은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 아니라 SNS와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으로 직접 경험에 가까운 경험이 익숙한 세대이다. 매체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노출이 많고 다문화 지식이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대 변화를 고려하여 다문화 접촉경험을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다문화 연구와 교육은 비교적 관심 있게 진행되어왔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 연구[11], 문화역량 관련 변인을 확인한 연구[10,14-18] 등이 있다. 다문화 역량에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 지식, 인식 뿐 아니라 다문화 경험, 자기효능감, 문화적 수용성, 문화적 공감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19-21]에서는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에 대한 태도, 자신감, 수용성 등에 일부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어 학부과정에서부터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한편, 교육요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선 및 개발을 위한 주요한 접근으로 대상자들의 교육요구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 만족도와 효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22]. 앞으로 간호 실무현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간호대상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다문화간호 역량 교육요구에 대한 조사는 간호교육과 간호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지만[2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간호에 대한 교육 요구가 어떠한지 확인한 연구는 Lee 등[24]의 연구 외에 미흡한 실정이다.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문화역량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의 문화간호역량에 대한 지식, 문화적 의사소통, 문화간호 연구에 대한 교육요구 수준을 확인하고 다문화 경험에 따른 요구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 문화적 역량과 교육요구 수준과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교육요구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 수준을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 문화적 역량,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를 확인하고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S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 분석을 위한 표본의 크기를 확인한 결과, 효과크기 .5, 유의수준 α 를 .05, 검정력(1- β)을 .80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10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공지된 URL을 통해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자는 총 127명이었다. 이중 응답이 불충분하였던 2명을 제외한 125명의 응답을 최종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21년 10월에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학과게시판과 SNS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참여 방법, 설문지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온라인 설문에 접속 가능한 URL을 공지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유도하였다. 온라인 설문 URL에 접속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읽

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만 온라인 동의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수-학생 간 취약한 연구대상인 학생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학생 개인별 연구 참여 여부를 교수가 알 수 없도록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설문의 내용은 개별화된 번호로 관리하였고 이름, 학번,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2.4 연구 도구

2.4.1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 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학년, 종교 유무, 성적 수준을 확인하였고 다문화 접촉경험은 국외 여행과 다문화 교육 등 간접적인 경험 5문항과 가족이나 친구관계의 직접적인 경험 4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8문항은 경험 여부를 있다/없다로 조사하였고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1문항에 대해서는 외국어 유창성 정도를 '보통 이상'과 '하'로 조사하였다.

2.4.2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Han [11]에 의해 개발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문화적 역량에 대한 지식 9문항, 기술 6문항, 경험 4문항, 인식 4문항, 민감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Han [1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0.7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4이었다.

2.4.3 문화간호역량 교육 요구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Tulman & Watts [25]의 ICCQ(Integration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Curriculum questionnaire)를 Kim [26]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 도구는 5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범주는 태도와 기술 11문항, 기본지식 9문항, 문화적 의사소통 4문항, 이론 및 연구에 대한 지식 7문항, 주요 개념에 대한 지식 5문항으로 총 36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필요함' 10점에서 '필요없음' 1점으로 응답되며 Likert 척도에 따라 평균 평점이 높을수록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9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7이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 경험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문화적 역량,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통계적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 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 경험의 빈도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4.5(±0.57)세이었고, 1학년 27.2%, 2학년 24.8%, 3학년 21.6%, 4학년 26.4%로 나타났다. 종교는 63.2%가 없었으며, 주관적 성적 수준은 '중'이 64.0%이었다. 다문화 접촉 경험에 대해 질의 결과, 외국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82.4%, 외국 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8%,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8%이었다. 다문화 친구가 있는 경우는 32.8%, SNS 다문화 친구가 있는 경우는 25.6%,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보통 이상'이 63.2%이었다. 다문화 가족이 있는 경우는 18.4%, 교내 다문화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48.8%, 교외 다문화 교육 경험은 47.2%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contact experience (N=125)

Variable	Categories	n(%) or M±SD
Age		24.5±0.57
Grade	1	34(27.2%)
	2	31(24.8%)
	3	27(21.6%)
	4	33(26.4%)
Religion	Have	46(36.8%)
	None	79(63.2%)
	Good	23(18.4%)
School record	Fair	80(64.0%)
	Poor	22(17.6%)
	Cultural contact experience	
Experience of travelling abroad	Yes	103(82.4%)
	No	22(17.6%)
Experience of foreign training	Yes	31(24.8%)
	No	94(75.2%)
Experience of living	Yes	31(24.8%)

abroad	No	94(75.2%)
Have foreign friends	Yes	41(32.8%)
	No	84(67.2%)
Have foreign friends with SNS	Yes	32(25.6%)
	No	93(74.4%)
Foreign communication skill	Average≤	79(63.2%)
	Low	46(36.8%)
Have foreign relatives	Yes	23(18.4%)
	No	102(81.6%)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in campus	Yes	61(48.8%)
	No	64(51.2%)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in suburban	Yes	59(47.2%)
	No	66(52.8%)

3.2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수준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49±0.55점이었고, 점수분포는 최저 2점에서 최대 5점이었다. 또한,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10점 만점에 평균 8.25±0.10점이었고, 점수분포는 최저 3.3점에서 최대 9.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Cultural competence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N=125)

Variable	M±SD	Min~Max
Cultural competence	3.49±0.55	2~5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8.25±0.10	3.3~9.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 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주관적 성적수준에 따라 문화적 역량(F=7.465, $p=.001$) 점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고, 사후검증에서 주관적 성적수준 '상', '중'이 '하' 보다 문화적 역량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접촉 경험 하위 영역 중 다문화 친구($t=-2.477$, $p=.016$), 교외 다문화 교육($t=-2.030$, $p=.045$) 경험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고,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t=-3.113$, $p=.002$)이 '보통이상'에서 '하' 보다 문화적 역량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 중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Table 3. Difference of Cultural competence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by Cultural contact experienc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125)

Variable	Categories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nursing competence	
		M±SD	t/F(p)	M±SD	t/F(p)
Grade	1	3.55±0.09	2.238 (.087)	8.18±0.18	0.949 (.419)
	2	3.66±0.12		8.55±0.15	
	3	3.26±0.12		8.09±0.30	
	4	3.50±0.05		8.18±0.19	
Religion	Have	3.59±0.10	-1.259 (.211)	8.51±0.14	-1.940 (.055)
	None	3.45±0.06		8.10±0.14	
School record	Good ^a	3.62±0.10	7.465 (.001) a,b>c	8.34±0.26	2.485 (.088)
	Fair ^b	3.59±0.07		8.36±0.12	
	Poor ^c	3.06±0.12		7.76±0.30	
Cultural contact experience					
Experience of travelling abroad	Yes	3.50±0.06	-0.154 (.878)	8.59±0.22	1.492 (.138)
	No	3.48±0.12		8.18±0.12	
Experience of foreign training	Yes	3.55±0.12	-0.481 (.631)	8.01±0.23	1.290 (.200)
	No	3.48±0.06		8.33±0.11	
Experience of living abroad	Yes	3.52±0.12	-0.244 (.807)	8.11±0.25	0.790 (.431)
	No	3.49±0.06		8.30±0.11	
Have foreign friends	Yes	3.69±0.09	-2.477 (.016)	8.18±0.17	0.502 (.617)
	No	3.41±0.07		8.29±0.13	
Have foreign friends with SNS	Yes	3.60±0.12	-1.041 (.300)	8.36±0.18	-0.620 (.536)
	No	3.47±0.06		8.21±0.13	
Foreign communication skill	Average≤	3.63±0.07	-3.113 (.002)	8.27±0.14	-0.304 (.761)
	Low	3.28±0.09		8.21±0.16	
Have foreign relatives	Yes	3.47±0.13	0.255 (.799)	8.30±0.19	-0.228 (.820)
	No	3.51±0.06		8.24±0.12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in campus	Yes	3.61±0.07	-1.941 (.055)	8.28±0.14	-0.290 (.772)
	No	3.40±0.08		8.22±0.16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in suburban	Yes	3.62±0.07	-2.030 (.045)	8.22±0.16	0.216 (.829)
	No	3.40±0.08		8.27±0.13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시기에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 교육요구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 경험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82.4%) 외국 여행 경험을 통한 다문화 접촉 경험이 있었으며 50% 정도의 학생들은 교내·외 다문화 교육경험이 있었다. 이는 Choi 등[27]의 연구에서 외국 방문경험(81.2%)과 다문화 교육 경험(58.1%)과 유

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추후 외국 여행을 통한 다문화 접촉 경험의 정도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 중 32.8%의 학생들은 다문화 친구가 있었으며 SNS로 다문화 친구를 접하고 있는 학생은 25.6%, 다문화 가족이 있는 대상자는 18.4% 이었다. 이는 Jeon 등[16]의 연구에서 다문화 친구 접촉 경험이 13.4%, 다문화 친척을 통한 접촉 경험이 9.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한 다문화 접촉 경험이 많았다. Allport[28]의 그룹간 접촉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에 의하면 서로 다른 집단 간 접촉이 많아질수록 상대 집단에 대한 편견은 감소하고 신뢰는

증가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과 같이 일상적인 접촉을 갖거나 친구나 동료 등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다문화 대상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므로[29] 간호대학생들과 대학 내 다문화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수준은 5점 만점에 3.49 ± 0.55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i 등[27]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10 ± 0.32 점, Park[30]의 연구 3.29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Kim[17]의 연구 3.67점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3,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Lim 등[31]의 연구 3.43점과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Jang[32]의 연구 3.46점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연구에 따라 대상자들의 다문화 접촉 경험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 대상자들이 선행연구에 비해 비교적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친구를 통한 다문화 접촉 경험의 비율이 높은 점이 문화적 역량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 역량수준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점수이기에 응답자의 판단에 의해서 잠재적 능력까지 포함하여 측정이 가능하나 대상자의 역량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객관적 지표로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10점 만점에 8.25 ± 0.10 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Lee 등[13]의 연구에서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평균 7.17점이었고, Cho[23]가 문화간호역량 교육 전 학습자 분석단계에서 확인한 교육요구는 $7.70 + 1.17$ 점으로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간호현장에서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돌봐야 할 기회가 증가됨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간호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간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또는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문화 접촉경험 중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친구 여부, 교외에서 받은 다문화 교육 여부로 나타났다. 먼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보통 이상인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 Jeon 등[16]의 연구에서도 문화적 역량은 의사소통 가능, 외국어 실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문화간호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33-36]. 대상자의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요구를 사정하고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외국인 대상자와의 언어장벽은 간호제공을 저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간호역량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간호학생들의 실무 간호 중심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통역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외국 방문 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없었으나 다문화 친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 Jang 등[32]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친구의 유무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Lee 등[13]의 연구에서도 외국인과의 만남 빈도, 외국인 친구의 수, 외국인과의 만남 기간,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정도와 같은 다문화 대상자와의 접촉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문화다양성 태도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접촉이 아니라, 친구나 동료와 같이 친분을 형성하는 지속적이고 질적인 접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29]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과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다문화 대상자와의 질적인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 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살펴 보았을 때, 교외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 내 교육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교육 경험을 교내·외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았으나 Choi 등[2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없었고 Part 등[10]과 Jang 등[32]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교내와 교외 다문화 교육의 결과가 다른 점에 주목하여 교내·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운영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한편, 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다문화 접촉경험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연령, 학년, 외국인과의 만남 기간에 따라 교육요구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13]. Lee 등[13]의 연구에서는 25세 이상이 24세 이하 보다, 4학년이 3학년 보다, 외국인과의 만남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

자의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가 10점 만점에 8.25점인 것에 비해 Lee 등[13]의 연구에서는 평균 7.17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교육요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경험 외에 다양한 변인들을 모색하여 교육요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간호대학생 12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문화적 역량의 수준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주관적 성적, 다문화 친구의 여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교외에서 받은 다문화 교육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문화간호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는 높은 편이었으나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교육요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무 간호 중심의 외국어 의사소통 교육을 제공하고 간호대학생들과 대학 내 다문화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문화 대상과의 질적인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 수준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 S시의 일개 여대를 편의 표출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대상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대상자와의 질적 접촉을 강화한 문화적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와 관련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또는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 *2020 Local government foreign resident status statistics*. Sejo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2] M. Hwang (2020). The effect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media exposure on adolescents' xenophobia : the mediating role of empathy towards stranger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52(3), 239-270.
- [3] S. Kim (2020). Disease, ideology, and xenophobia: politicization of COVID-19 and the rise of anti-chinese sentiment in South Korea. *Multiculture & Peace*, 14(1), 22-43.
- [4] K. A. Nam & S. Moon (2015). Nurses' prejudice toward foreigners: Focus group interviews. *Korean J Rehabil Nur*, 18(1), 57-66.
- [5] K. L. Ulrey & P. Amason (2001).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health care providers: an exploration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ffectiveness, cultural sensitivity, stress, and anxiety. *Health Commun*, 3(4), 449-463.
- [6] H-Y. Jang & E. Lee (2016). Caring Experiences of the Nurses Caring for Foreign Inpatients of non-English Speak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415-426.
- [7]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7). Cultural and linguistic competence. http://www.icn.ch/images/stories/documents/publications/position_statements/B03_Cultural_Linguistic_Competence.pdf.
- [8] S. Y. Han & H. I. Cho Chung (2015).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5), 684-693.
- [9] M. S. Park & Y-R. Kweon (2013). Effects of a Cultural Competence Promo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Maternity Nursing Care: Case-based Small Group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626-635.
- [10] Y-S. Park, S-O, Lee & H. K. Lee (2015). Difference of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ic ability according to multicultur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5(2), 39-47.
- [11] S. Y. Han (2014).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12] S. Y. Lee (2013). sense of social distance among the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y : focused on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13] N-Y Lee, Y. S. Eo & J. W. Lee (2015). Level of cultural competence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1), 16-27.
- [14] E. M. Lee & S. H. Kim (2018). The structural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3), 115-137.
- [15] S. Y. Yang, H. N. Lim & J. H. Lee. (2013).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183-193.
- [16] H. K. Jeon & Y. Ko (2020).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6(2), 157-166.
https://doi.org/10.14370/jewnr.2020.26.2.157
- [17] K. H. Kim (2020). Effect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empathy on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8), 241-247.
- [18] J. Choi & J. A. Kim (2019). Effects of the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contact on cultural competence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14(1), 17-24.
- [19] J. S. La & Y. H. Cho (2020). Effects of a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multicultural attitude, cultural competency, and cultural nursing confid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23-38.
- [20] M. J. Chae, J-I. Kim & J. H. Lee (2015). Effects of a multicultural cours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competenc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for multicultural childre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373-381.
- [21] S. K. Park, S. H. Jeong & H. S. Kim (2018). The effect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ogram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5), 2695-2710.
- [22] J. Y. Shin, J. S. Kim & Y. Chung (2020). Need analysis of competence-based liberal arts education among undergraduates of I-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3), 39-54
- [23] M. J. Cho (2021).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for multicultura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 University, Pocheon.
- [24] I. S. Lee & J. Y. Cho (2014). A study on the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283-290.
- [25] Tulman, L., & Watts, R. J. (2008).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blueprint for integration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curriculum questionnair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4(3), 161-166.
- [26] S. H. Kim (2013).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for nursing students and its effec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580-593.
- [27] Y. S. Choi & K. J. Lee (2021). Relation between cultural empathy,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5(6), 105-113.
- [28] G. W. Allpor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25th ed)*. New York: Perseus Books Group.
- [29] K. S. Shim (2018). *Implication of intergroup contacts on social cohesion in multicultural society: with focus on trust and cultural d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Seoul.
- [30] S. Y. Park (2016). Relationship Between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ti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45-355.
- [31] H. J. Lim & J-H. Kim (2020).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y and Ethical Sensitivity on the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5), 1909-1922.
- [32] S. Jang & I. Seo (2020).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y and multicultural 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2(1), 246-257.
- [33] D. H. Chae, Y. H. Park, K. H. Kang & T. H. Lee (201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1), 76-86.
- [34] M. K. Kim (2010). A qualitative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e: Focusing on the cultural cognition,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skill.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9(6), 945-965.
- [35] S. O. Yang, M. S. Kwon & S. H. Lee (2012).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visiting nurses and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3), 286-295.
- [36] D. H. Kim & S. E. Kim (2013). Cultural competence and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2(3), 159-168.

유 장 학(Jang Hak Yoo)

[정회원]



- 2001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청소년, 운동, 스트레스
- E-Mail : janghryu@swc.ac.kr

천 의 영(Eui Young Cheon)

[정회원]



- 2004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삶의 질, 노인건강, 사회연결망
- E-Mail : astra20@swc.ac.kr

김 해 진(Haeji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간호교육, 암환자 간호
- E-Mail : kimhj@swc.ac.kr